

# 대륙의 한국어 어휘교육연구 현황 및 방향

文英子 (扬州大学)

## 1. 서론

###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교육은 그 필요성에서부터 논의가 시작된다. 어휘교육이 과연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느 정도 필요하며, 어떻게 교육해야 하는가? 어휘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는 교수법에 따라 변화해 왔다. 1970년대 초반까지는, 청각구두식 교수법과 구조주의 접근법에서 어휘 교육을 무용하다고 보는 견해가 주였다. 1970년대 중반부터 다시 어휘에 대한 관심이 되살아나고 어휘 의미론적인 관점이 도입되었으며, 어휘가 언어 기술 중의 하나라는 입장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Fries(1945)는 외국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소리 체계와 문법구조를 배우는 것이지 어휘를 배우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으며, 통사적 구조를 연습하는 데 필요한 어휘만 알고 있으면 충분하다고 보았다. 반면에 의사소통 접근법에서는, 성공적인 제 2 언어의 사용을 위해 적당량의 어휘 습득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였다. 영국의 유명한 언어학자 D.A.Wilkins의 “문법이 없이는 의미가 거의 전달되지 않지만 어휘가 없으면 의미는 전혀 전달되지 않는다”<sup>1</sup>는 지적 아래 어휘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었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학습자의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목적으로 하며, 학습자의 의사 소통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읽기, 듣기, 쓰기, 말하기 등 언어 사용에 요구되는 지식습득의 지도가 중요한 교육 내용으로 된다. 모국어가 아닌, 다른 하나의 언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어휘의 습득이다. 언어의 효과적인 의사 소통은 풍부한 어휘력을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나타내는 능력을 갖추으로써 가능한 것이다.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경우, 어휘력의 부족으로 한국어 독해와 의사소통에서 불편을 겪거나 영향을 받게 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한국인과 대화 시, 적절한 어휘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능력이 낮아 자신이 표현하고자 하는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하거나 오해를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한국어 어휘력을 높이는 것은 한국어 교육에서 홀시되어서는 안 될 분야임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

<sup>1</sup>.허용 외(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141P.

본 연구는 중국 대륙의 한국어 어휘 교육연구에서 연구되어진 기존의 어휘 교육 연구 관련 논문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어휘 교육의 현황을 짚어보고 향후의 어휘교육에서 어휘가 한국어 교육의 중심적인 요소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어휘력의 개념, 어휘교육의 목표, 어휘 교육의 내용, 어휘목록의 선정, 효과적인 어휘 교육 방법 등을 망라한 어휘 지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연구 목적을 둔다.

## 1.2 선행 연구 검토

중국 대륙의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교육과 어휘교육연구는 뒤늦게 시작되었으며 발전 수준 역시 비교적 뒤떨어진 편이다. 중국 대륙의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가 소규모로나마 시작된 지는 약 10 여 년의 역사에 불과하다. 중국 대륙에서 한국어 어휘 교육 관련 연구 논문들이 발표 또는 등재되는 간행물로는 비정기간행물로 출간되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 연구 학회가 주관하여 펴내는 『한국(조선)어 교육연구』(제 1 호가 2003 년에 출간된 뒤를 이어 2008 년에 제 6 호가 출간되었다.)이고, 다른 하나는 연변 과학기술대학교에서 주관하는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2000 년도에 제 1 집을 출간하기 시작하여 2007 년까지 7 집을 출간하였다.)이다.

지난 10 여 년 간에 걸쳐 이 두 간행물에 등재되었거나 두 학회가 개최한 학술회의에서 발표된,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관련 논문들을 집계해 본 결과, 『한국(조선)어 교육연구』에 등재된 논문이 44 편이고,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 등재된 논문이 23 편이었으며, 그 밖에 이 두 비정기 간행물에 등재되지는 않았지만, 연변과학기술대학과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학회가 주최하는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이 18 편으로 도합 85 편에 달했다.<sup>2</sup>

상기 논문들에서 다루어진 주제는 주로 다음과 같다.

### ① 어휘 교육방안에 대한 모색

관련 연구로는 노금송(2002),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모색”; 최희수(2002), “어휘 교수에서의 몇 가지 문제”; 박숙자(2003), “어휘교수와 한국어 교육”; 한위성(2003), “한국어 어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최희수(2003),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이홍매(2005), “한국어 어휘 문법 교육과 광고의 활용” 등이 있다.

노금송(2002)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발음으로부터 시작하여 어휘, 문법, 통사 등 순서로 진행됨을 인정하면서 그 어느 단계에서도 빠뜨릴 수 없이 진행되는 교육이 바로 어휘 교육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초급단계, 중급단계, 고급단계로 분류하여 어휘교육을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함과 아울러, 어휘 분류, 반의어 제시, 유의어 수업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최희수(2002)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학습자들이 어휘습득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원인

<sup>2</sup> .상술한 논문집계자료는 논문 뒤에 붙인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을 의미와 쓰임새의 다양성, 형태변화의 복잡성, 다량의 관용어 사용 등 세 가지로 귀납하고 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교육과의 차별을 지적하함과 동시에,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를 참답게 진행해야 할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최희수(2003)은, 제 2 언어로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에서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언어 대비 연구방법을 동일한 언어 내부에서의 공시적 대비, 동일한 언어 내부에서의 통시적 대비, 부동한 언어 사이의 통시적 대비, 부동한 언어 내부에서의 공시적 대비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② 어휘 의미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관련 연구들로는 김병운(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의미 교육방법에 대하여”; 박선희(2001), “회화 교육에서의 어휘와 문법의 교수”; 민영란(2003), “어휘숙달을 위한 문맥적 의미의 교수”; 김찬화(200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의미교육 방안”; 김경숙(2004), “중·한 동형 한자어의 의미론적 비교 및 한국어 어휘교육”; 문영자(2005), “의미가 전이 확장된 어휘의 양상과 교육”; 한위성(2004), “한·중 어휘의 의미론적 비교와 그 교육”; 박문자(2006), “어휘 의미와 ‘문화소’”; 마금선(2008), “중·한 교육용 어휘에 대한 고찰” 등이 있다.

김병운(2000)은, 어휘와 어휘 의미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어휘 의미 해석 시 사용언어를 학생들의 모국어인 중국어로 해석하는 방법, 중, 한 두 가지 언어로 해석하는 방법, 한국어로 해석하는 방법 등을 초급, 중급, 고급 세 단계 사용언어로 권장하고 있다.

박선희(2001)는 회화 교육에서 중요시되어야 할 어휘와 문법 교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동시에, 한국어를 능란하게 구사하고 의사소통에 지장 없이 하려면 회화의 기본이 되는 어휘력을 신장하도록 해야 하며 어휘 응용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영란(2003)은, 문장이나 담화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몇몇 단어를 열거하여 생존에 필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으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숙달된 어휘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주장 아래, 언어숙달도의 개념을 제시하고 문맥적 의미를 통한 어휘숙달도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어휘 교수의 원리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문맥을 통해 전이적 의미, 함축적 의미, 비유적 의미, 관용적 의미를 추론하여 전체의 줄거리를 알고 글의 중심을 파악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찬화(2003)는, 중국어에서의 유의현상으로 인한 의미의 분화현상과 다의어 현상으로 인한 의미의 분화현상의 영향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혼란을 느끼는 형용사를 대상으로, 구체적인 예문을 대량으로 제공하는 의미교육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문영자(2005)는 일부 어휘들은 화자 머릿 속에 내재되어있는 그대로 전달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의미가 전이되거나 확장되고 새로운 단어로 변이하여 전달되거나 해석된다는 정의 아래, 이 과정에 나타나는 일부 일대 일로 대응시킬 수 없는 어휘에 대한 교육 방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경우, 원형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시킨 바탕에서, 전이되거나 확장된 어휘의 의미를 잘 이해시켜야 하며, 어휘 속에 내포되어있는 화자의 감정을 이해

시켜야 하며, 단순한 어휘로서가 아니라 문맥 속에서 의미를 올바르게 이해시켜야 한다는 교육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 ③ 한자어 교육 지도방안 탐구

최근에 와서 한자어 교육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어휘 교육 연구 관련 논문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관련 연구들로는, 문려화(2004), “의미가 축소된 한자어 및 그 한자어 교육”; 장광군(2004), “한자어 교육과 의미투명도 이론의 적용”; 민영란(2004), “텍스트에 나타난 한자어의 양상 및 그 교육”; 김경숙(2004), “중·한 동형한자어의 의미론적 비교 및 한국어 어휘교육”; 이홍매(200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최희수(2004), “한국어 한자어 전수의 필요성”; 오춘화(2004), “오류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어 지도방법 모색”; 진염평(2004), “한국어의 한자어 연구”; 이득춘(2005), “한국어 신조어 중의 한자어”; 최희수(2005), “한국어 한자어의 특성”; 이득춘(2005), “21 세계 한국어 신어(新語) 중의 한자어”; 송교(2007), “교과서에 나온 한자어와 한어 어휘의 대비”; 지수용(2008), “중국에서의 한국어 한자교육과 한자 교재개발 방안”; 마금선(2007)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 노금송(2008), “중·한 번역에서의 한자어 교육 연구”; 이홍매(2005), “한국 신문표제어의 한자어에 대하여”; 조암(2006), “중국학생을 위한 한자어 학습과 교육”; 한위성(2006), “중·한 동형어의 의미적 비교 일고찰”; 사려평(2007), “‘스럽다’의 어휘의미와 중국어 대역” 등이 있다.

최희수(2004)는 한자음 교수가 한자어를 이해하는데 이로온 긍정적인 면이 있으면서도 부정적인 작용도 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어 한자어와 한자음은 유기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어 교육에서 한자어 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염평(2004)은 중, 한 두 언어에 대한 비교를 통해 한국어 중의 한자어 습득 방법을 찾아내고자 시도했으며, 한국어 어휘의 대부분이 한자어와 관련되는 만큼 한자어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한국어를 올바르게 구사할 수 없으며 한국문화를 올바로 이해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제기하고 있다.

민영란(2004)는, 한국 연세대 한국어학당 편찬 교재 <한국어 1-6>을 대상으로 한자어를 추출하여 음절수에 따른 한자어의 양상과 구조에 따른 한자어의 양상과 동형동의어, 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의미를 통한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장광군(2004)은, 한자어는 원어 속에 투명어와 반투명어가 많으므로 한국어에 차용된 뒤에도 구성요소의 분석과 전체 의미의 파악이 대부분의 경우에 가능하기 때문에 투명어가 많게 되지만 한자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동음이의어와 동철이의어로 인한 불투명어가 많이 됨을 지적하고 있다.

한위성(2004)는, 어휘를 구성하는 형태소 사이의 의미적 관계로부터 반의한자어와 동의한자어를 예로 제시하였으며, 또 형태소는 같으나 어휘 구성 순서는 중국어와 정반대인 동소반소어를 들어 의미적 측면에서 동의반서어와 이의 반서어의 예들을 제시하면서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휘력을 높이는 데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경숙(2004)은, 중 한 동현한자어의 형성원인과 동형어의 의미론적 분류로부터 출발하여 중국어와 한자어를 대조 분석하면서 한국어 어휘교육에서 주의해야 할 점에 대하여 논의하고 있다.

문려화(2004), 조암(2006), 송교(2007), 지수용(2008) 등에서도 한자어 교육의 필요성을 긍정하고 한자어 교육의 내용, 방법, 범위, 독음, 의미, 표현 등에 대하여 몇 가지로 나누어 논의하고 있다.

#### ④ 오류분석을 통한 어휘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박선희(2003), “어휘 사용의 오류시정을 통한 어휘교육”; 지수용(2004),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어음, 어휘 오류 분석 연구”; 오춘화(2004), “오류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어 지도방법 모색” 등이 관련 연구들이다.

박선희(2003)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서 쉽게 나타나는 오류를 고유어, 한자어, 경어 중심으로 나누어 분석하면서 각각의 효과적인 오류 방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오춘화(2004)는, 중국인 학습자들이 통역이나 번역 시에 한자어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빚어내는 오류들을 대상으로 살펴보면서 오류 초래 원인을 분석하고 한자어 어휘 교육 중에서 효과적인 교육방법을 모색하고자 시도하였다.

#### ⑤ 신조어, 약어, 연어 습득과 교육에 관한 연구

관련 연구들로는, 이홍매(2002), “신조어 및 언어규범화에 대하여”; 이홍매(2003)1, “한자어 신조어가 표현하는 말의 경제성”; 이득춘(2005), “한국어 신조어 중의 한자어”; 장광군(2003), “어휘 교육에서의 약어 교육”; 유철(2005), “신축어 축약어와 한국어 교육”; 여춘연(2008), “한국어 연어에 대한 연구”; 이홍매(2003)2, “유추적 신조어와 어휘 습득에 대하여” 등이 있다.

이홍매(2002)는, 한국에서 신조어가 급증함에 따라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신조어 교육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컴퓨터와 인터넷, 첨단과학기술, 경제, 건강, 야구와 골프, 다양한 생활방식과 복장, 색채어, 등 여러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다.

이홍매(2003)1은, 한자어의 말의 경제성이 한국어 고유어 신조어의 단어조성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고 지적하고, 한자어 신조어가 나타내는 언어 경제성을 축약법, 파생법, 개괄법, 대체법, 생략법 등 단어조성에서 관찰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홍매(2003)2는, 한국어 기존어휘에 의한 유추신조어를 6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고찰하면서 유추적 신조어가 표현하는 규칙에서 어휘의 생성방식을 살펴보는 것은 어휘의 체계적인 습득에 도움이 되며 이런 어휘의 의미체계들에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뿌리깊게 연결되어있으므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필요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장광군(2003)은, 한국어에서 한자어의 수요가 많고 사용범위가 넓은 것은 한자어 약어가 활발히 사용되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고 인정하면서 한자어 약어 조성의 조어법, 한자어 약어의 제특성을 개괄하여 제시하면서 한국어에서 어휘사용의 현실적 상황에 맞게 생산성이 높은 약어 조성법을 연구하고 한국어 교수에서도 약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야 할 필요성과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이득춘(2005)은, 2003 년도의 신조어 자료들을 대상으로 세기의 교차점에서 산생한 한자어의 분포 상의 특징과 품사 상의 특징을 살펴본 기초위에서 2001 년에 나타난 신조어 중의 한자어 특징을 6 가지로 귀납하고 2002 년, 2003 년에 나타난 신조어 한자어의 특징을 3 가지로 개괄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⑥ 다의어, 유의어 교육에 관한 연구

관련 연구들로는 노금송(2002),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모색(유의어를 중심으로)” ; 노금송(2003), “한국어 다의어와 유의어 교육 연구” ; 진염평(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의 학습과 지도 방법 연구” ; 우리강(2005), “민족문화 동의어에 대한 연구” ; 김찬화(2006), “유의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분석” 등이 있다.

노금송(2002)은, 교육현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휘 오용으로 인하여 비문이 나타나는 것은 한국어 어휘 특징 자체에 존재하는 유의어, 한자어와 양국 문화적 차이 등에서 그 원인을 도출하고자 했으며, 한국어 학습자들이 유의어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비문에 대해 유의어 의미의 비교, 쓰임의 차이 등을 통해 가르쳐야 한다는 교수법을 제안하고 있다.

노금송(2003)은, 다의어 지도에서 대상 부류의 방법을 시도하면서 초급단계에서 고급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의어의 활용은 아주 중요하다고 일축하고 이를 통해 학습자들의 어휘량을 늘리고 어휘력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염평(2005)은, 유의성을 가진 낱말들의 비교를 통하여 유의어 산생 계기와 양상을 문체, 전문성, 내포, 완곡어법, 방언 등으로 분류하여 제시하고, 각 낱말들 간의 의미 차이를 파악함으로써 유의어의 의미를 더욱 정확하게 변별할 수 있는 지도방법을 나열 지도 방법, 사전적 의미 숙달 지도방법, 기본의미 분석 지도방법, 치환 지도 방법, 반의어 지도 방법 등으로 제안하고 있다.

우리강(2005)은, 어휘적, 개념적 의미에만 국한되는 단점을 보충하고 어휘학, 어의학 등 전통언어학 연구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민족문화 동의어에 대한 연구는 이론적 의의 뿐만 아니라 사전편찬학, 문학번역, 기계번역, 외국어교수법 등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 ⑦ 동요나 영상매체 및 신문을 통한 어휘 교육 연구

문영자(2004), “한국 동요를 이용한 어휘 교육” ; 이홍매(200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등 두편이 있다.

문영자(2004)는, 동요는 해맑은 동심의 세계로부터 보이는 그대로 그려내고 묘사해낸 한국어 어휘를 쉽게 습득하고 또 그 과정에서 한국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요를 이용하여 의성어, 의태어, 형용사, 의인화한 어휘를 습득할 수 있고, 관찰력과 상상력이 풍부한 어휘, 서정이 담긴 어휘 등을 배울 수 있다고 강조하면서 동요를 이용한 어휘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이홍매(2004)는, 학술용어, 전문용어가 많이는 한자어로 되어있고 그 간결성은 언어경

제성이 있어 고유어에 비해 문장구조의 쓰임이 자유롭고 간결하여 신문에서 사용빈도가 높다고 하면서, 신문을 통한 어휘 교육을 한다면 신속한 정보전달, 깊은 사고력과 논리성, 전문용어의 습득, 내용의 다양성 등 면에서 효과적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 ⑧호칭어, 인터넷 통신언어 교육에 관한 연구

관련 연구로는 제효봉(2007), “중 한 부모친족어에 관한 대비 연구”; 교육양(200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회호칭어 사용실태 조사와 분석”; 고정(2008), “한국 인터넷 통신 언어 해석”이 있다.

제효봉(2007)은, 중 한 언어 중에서 부모 친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예로 들어 분석하면서,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중국어와 한국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이해시키고 정확하게 활용하도록 할 것을 제안하면서, 어원적 측면, 어휘구성 측면, 방언적 측면으로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지칭 기능상의 특징을 준비 체계에 따른 분류, 연령 및 성별에 따른 분류, 부모친족어의 독립적 호칭 여부에 따른 분류 등으로 고찰하고 있다.

교육양(2008)은, 대학생 117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사회호칭어 사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한국어 사회호칭어 사용경향을 확인하고 사용 중에서 나타나는 부정확한 호칭을 사용하게 되는 원인을 모국어의 문화규범과 제약, 한국어 호칭어 사용규범에 대한 이해 부족, 방언 호칭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분석하였다.

#### ⑨고유어, 방언 교육에 관한 연구

관련 연구로는 김석기(2003), “효과적인 고유어 지도방법 모색”; 최희수(2003),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김석기(2005), “고급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인 사투리 교육 방안모색”; 김경숙(2008), “외국어로서의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지도방안 모색(고유어를 중심으로)” 등이 있다.

김석기(2003)은, 고유어를 지도할 때 단순한 의미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유어 형용사와 동사와 뜻이 비슷한 유의어를 함께 예로 들어 교육하고, 또 한자어를 병행하여 교육한다면 효과가 더욱 좋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또 유의어와 여러 가지로 대응되는 한자어를 함께 가르친다면 그 의미를 파악하는데 이롭다고 지적하고 있다.

최희수(2003)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나타내는 상호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한국어 고유어 교수에서 그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 문장에서 하는 기능, 화용론적 특성을 가르침에 주의를 돌려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김경숙(2008)은, 중국인 학습자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고유어에 각광을 줘 어휘 분류 제시, 반의어 제시, 유의어 제시, 경어 제시, 이철자 동음이의어 제시, 대응되는 한자어 제시, 통합적 관계 설명, 어휘장 제시 등 방법을 이용한다면 고유어 교육을 효과적으로 행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김석기(2005)는, 사투리의 개념, 사투리의 특성을 살펴본 후, 영화나 드라마 또는 유머 그리고 각 지방 사투리 어휘를 통한 교육 방안을 제시하면서 학습자는 표준어뿐만 아니라 사투리도 접하고 습득함으로써 언어 속에 배어있는 한국 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 ⑩ 품사 교육에 관한 연구.

유춘희(2004)1, “한국어 부사 교수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 유춘희(2004)2, “한국어 부사의 일고찰”; 이성도(2004), “한국어 흉내말 및 그 교육에 대하여”; 김찬화(200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의미교육 방안”; 곽일성(2009), “한국어 미각형용사 의미전이 연구”; 김순길(2009), “한국어 3인칭 대명사의 사용제약에 대하여”; 유춘희(2005), “‘가장’과 ‘제일’의 의미와 구문론적 특성”; 유길문(2008), “중·한 색채어에 나타난 은유적 의미 탐구”; 정혜(2005), “부정부사 ‘안’, ‘못’의 통사적 분석”; 염광호(2003), “단위 명사 처럼 쓰이는 단어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정동매(2005), “한·중 의성어의 비교 고찰”; 강용택(2006), “신체어와 관련된 우리말 관용어에 대하여”; 마회하(2006), “기호학으로 본 한 중 색채어의 문화정보”; 왕단(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형용사 대조분석” 등이 있다.

상기 논문들은, 한국어 부사, 형용사 교육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하게 논의하고 있다.

유춘희(2004)1 에서는, 사용빈도가 명사, 동사, 형용사의 버금으로 가는 한국어 부사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난이도가 비교적 높다는 점을 지적하고, 부사오류의 발생 원인과 부사 교수에서 존재하는 문제점을 밝히고, 부사의미 교수에서 주의할 문제, 부사용법 교수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점을 분류하여 제시하고 있다.

유춘희(2004)2 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부사목록 중에서 추출해낸 한자어 부사를 대상으로 그의 구성, 의미, 사용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한자어부사의 구성, 한자어 부사의 의미, 한자어 부사의 사용 등으로 나누어 한자어 부사에 대해 제시하면서 이런 부사가 한국어에 필연적으로 영향을 준다고 말하고 있다.

이성도(2004)는, 흉내말은 초급단계에는 과다하게 가르칠 필요가 없지만 고급단계에는 수필, 소설, 시 등 문학 작품을 통하여 많이 가르쳐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특히 사용빈도가 높은 흉내말 교육은 한국어 쓰기 능력과 말하기 능력 신장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정동매(2005)는, 한국어 의성어와 중국어 의성어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구조적 특징면에서 기본적인 구조형태, 음절수, 음절구조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면서 학습자들에게 좋은 학습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곽일성(2009)는, 한국어 미각형용사는 미각을 표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상 언어 생활에서 흔히 전이된 의미로 쓰이기도 한다면서 어휘의 의미 전이에는 의미들 간에 꼭 어떤 유연성이 있다고 정의하고, 그들의 의미 전이 과정에서 공통으로 작용하는 규칙을 인지하고 이해한다면 어휘학습에 도움이 됨을 제시하고 있다.

마회하(2006)은, 기호학 연구방법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색채어 문화정보를 제 1 층단계와 제 2 층단계로 분류하여 연구하고 있다.

중국 대륙에서의 한국어 어휘 교육연구 상황을 분석해 본 결과, 비록 적지 않은 관련 연구들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어휘 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보다는 부분적인 논의만 이



루어진 상황이다. 그런 만큼 어휘 교육의 틀이 잘 마련되어있지 않다는 견해이다. 향후 부분적인 연구보다는 보다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 2. 어휘력과 어휘 교육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은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에 그 기본 목표를 두고 있다. 이는 언어 사용 기능의 신장이 한국어 교육의 매우 중요한 목표임을 보여 준다. 언어사용 기능의 구체적인 실현은 ‘듣기, 읽기, 쓰기, 말하기, 옮기기’의 언어 활동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 풍부한 어휘력이다. 일반적으로 언어의 사용 능력은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어휘의 양과 어휘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어휘를 모르면 언어 생활이 거의 불가능하다. 이처럼 원활한 의사 소통 능력을 갖추기 위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따라서 제기되는 것이 어휘 교육 대상에 대한 파악, 어휘 교육의 목표, 어휘 교육 내용, 어휘 목록 선정, 어휘 교육 방안 등이다.

어휘 교육의 중요성은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도구적 관점으로 어휘가 언어 사용에 필요하 기때문에 교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등의 언어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휘가 ‘도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하나는 인지적 관점으로, 어휘가 인간의 인지 능력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임에 기인하고 있으므로, 어휘 교육의 중요성이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의 기초가 된다는 의미이다.

원활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해서는 어휘교육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의도적이고 체계적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말과 글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고 타인의 견해나 느낌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면 어휘력 향상이 수반되어야 하며 필수적이다. 이는 향후 대륙의 한국어 교육 연구 학자들이 주의를 기울여 연구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된다.

### 2.1 어휘력의 개념

어휘력 향상을 위한 어휘 지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휘력의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요구된다. 어휘력은 간단하게 말하여 ‘어휘에 대한 지식’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충우(1991)는 어휘력은 어휘를 구사하는 개인의 지적 성취의 수준에 관련된 능력으로 고도의 판단능력, 조직능력, 분석 능력, 비판 능력 등을 비롯하여 현재 진행중인 주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나아가서는 세계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까지가 더불어

결합되는 수준에 이르러야만 비로소 적격의 문장을 생성해 낼 수 있다고 하였다.

마광호(1998)는 어휘 지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언어 사용 능력으로 보고 언어 사용 능력을 사전적 정보와 형태적 정보 그리고 문맥적 정보를 이용하여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과 관습적 어휘 사용을 바탕으로 개성적 어휘 사용까지 할 수 있는 어휘 구사 능력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어휘사용 능력, 의미 파악 능력(이해 과정에서 의미를 파악하는 능력), 사전적 정보의 활용 능력, 형태적 정보의 활용 능력, 문맥적 정보의 활용 능력, 어휘 구사 능력(표현 과정에서 단어를 선택하는 능력), 관습적 용법의 구사 능력, 개성적 용법의 구사 능력으로 분류하여 설명하였다.

어휘력에 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대체로 어휘력을 양적 능력과 질적 능력으로 나누고 있으며, 질적능력은 어휘의 형태, 어휘의 의미 화용에 대한 지식으로 나누고 있다. 본 연구는 어휘력을 어휘의 형태, 어휘의 의미, 화용에 대한 지식의 총체로서 어휘의 지시적, 문맥적,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휘를 구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이라고 정의하고자 한다.

## 2.2 어휘 교육의 목표

교육의 올바른 방향은 목표를 바로 세우는 일에서 출발한다. 어휘 교육의 목표는 일차적으로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것으로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어휘 교육은 그 자체가 수업의 내용이 되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읽기, 쓰기, 말하기 등의 언어 사용 활동과 관련되는 기능을 신장시키기 위한 수업의 사전 활동의 성격을 띠는 경우가 많다.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수록 자신의 경험을 더욱 정확하게 이해하며 표현할 수 있고, 낱말을 많이 알수록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어휘 교육의 목표는 어휘의 양적, 질적 확대와 어휘 학습 방법의 지도가 이루어져서 일차적으로 학습자들의 어휘력을 신장시키는 데에 있다. 이는 낱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고 이해하며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궁극적으로 목표하는 바는 어휘력의 신장을 기반으로 한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이라고 할 수 있다.

언어 사용 능력의 신장을 위한 어휘력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의도적인 어휘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낱말의 정확한 의미 파악과 더불어 다른 어휘들간의 관계를 파악하는 기능을 갖추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3 어휘 교육의 내용

어휘 교육의 목표가 많은 낱말을 알고 정확하게 사용하도록 하며, 실제 언어 환경에서도 학습 방법이 활용되어 어휘 습득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있다고 한다면, 이를 위해서 어떤 어휘를 교육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내용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된다.

조현용(2007)은 김종학(1995)에서 인용한 일본의 언어학자 林四郎(1971)과 眞言信治(1977)의 정의를 재인용하고 있다.

林四郎(1971):

- ① 기초어휘:의미의 논리적 분석에 의하여 얻어진 반인공적인 어휘
- ② 기본어휘:특정 목적을 위한 기본 어휘
- ③ 기준어휘:표준적 사회인으로서의 생활에 필요한 어휘
- ④ 기조어휘:특정 작품의 기조를 이루는 데 기여하는 어휘
- ⑤ 기간어휘:어떤 언어집단의 기간부로서 존재하는 어휘

眞言信治(1977):

- ① 기초어휘:특정언어 가운데 그 중추적 부분으로서 구조적으로 존재하는 단어의 부분 집단
- ② 기본어휘:어떤 목적에 따라 인위적으로 선정되면 공리성을 지닌 단어집단
- ③ 기간어휘:어떤 특정어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휘조사로부터 직접 얻어지는 그 단어 집단의 골격적인 부분집단

조현용(2007)은 林四郎(1971)과 眞言信治(1977)의 연구에서 주목되는 것이 기본어휘에 대한 정의라고 하면서, 기본어휘는 ‘특정목적’에 따라서 어휘가 선정된 것이기 때문에 한국어 교육에서는 기초어휘보다는 기본어휘가 정확한 용어라고 말하고 있다.

이영숙(1996)은 과학적이고 효과적인 어휘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 대상 어휘의 선정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을 밝히고 교육 대상 어휘 선정의 원리로 ‘유용성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 단계성의 원리’를 제시하였으며, 주세형(1999)은 단어의 빈도수, 단어의 품사, 단어 의미의 구체성을 제시하였다.<sup>3</sup>

김정숙(2003)은 한국어 정규과정 언어 교육목표를 1~6급으로 분류하여 제시하면서

---

<sup>3</sup>.윤현주(2002), “국어 어휘 지도 방안 연구”, 梨花女大 박사학위 논문에서 재인용.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원리를 사용빈도를 기준으로 교육내용을 설정하고 배열, 특수 목적 수행에 필요한 기본 교육내용을 포함, 한국적 특수성과 인류 보편성을 감안해 교육내용을 설정, 생성 목적과 수용 목적에 따라 교육내용을 차별화, 교육내용을 순환적으로 배열, 교육 목표와 교육 내용 간의 상관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어휘의 형태, 어휘의 의미, 어휘의 지시적, 문맥적,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어휘를 구사하고 표현할 수 있는 언어 사용 능력이라는 어휘력의 개념을 염두에 둔다면, 어휘 교육의 내용은 어휘의 형태에 관한 교육, 어휘 자체의 의미와 용법에 관한 교육, 새로운 어휘 습득과 관련되는 교육 등으로 설정할 수 있다.

### 3. 어휘 교육 방안

#### 3.1 한국어 어휘 선정 기준

어휘 교육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어떤 어휘를 가르쳐야 하는가 하는 문제이다. 다양한 문맥 속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좋겠지만, 사회 언어환경의 제약이 따르는 중국 학습자를 위한 언어교육의 경우에는 어휘의 선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어휘는 기본어휘와 기초어휘로 나눌 수 있다. 기본어휘란 사용빈도가 높고 사용범위가 넓은 어휘의 집합으로 구체적인 자료(교과서, 잡지, 뉴스 방송 등)에서 뽑아낸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말하며, 기초어휘는 학문적인 전망을 가지고 설정된 일상생활에 필요한 언어 표현 단위로서의 어휘집합을 말한다. 기초어휘는 어휘의 총수나 어휘의 범위가 사전에 결정되어 있어서 설정 방법이 주관적이고 연역적이라는 차이가 있다.<sup>4</sup>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은 기본 어휘를 바탕으로 교육체계를 설정하고 기본 어휘를 둘러싸고 교재를 만들게 되며 기본 어휘를 습득시키는 것이 교수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 어휘 선정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

백봉자(1991)는 학습자는 문법을 몰라도 단어만으로 의사소통을 하려 하기 때문에 단어의 효용가치가 크다고 생각하고 교재에 나오는 어휘는 모두 기억하려고 애를 쓴다고 논하고 있다. 이는 교재에 선정되는 기본어휘의 중요성을 아주 적절하게 증명하는 예이다. 어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교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휘목록의 선정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sup>4</sup> 허용 외(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P153.

할 것이다.

현행 한국어 능력시험에서 제시한 어휘 관련 항목은 아래와 같은 6 등급으로 분류되어있다.

1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어휘</li> <li>·사적이고 친숙한 소재 관련 기본적 어휘</li> <li>·기본 인칭 및 지시대명사, 의문대명사</li> <li>·주변의 사물 이름, 위치 관련 어휘</li> <li>·수와 셈 관련 어휘</li> <li>·'크다', '작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형용사</li> <li>·'오다', '가다' 등과 같은 기본적인 동사</li> <li>·물건사기, 음식주문 등 기본적 생활관련 기초어휘</li> </ul>	4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반적 소재를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li> <li>·직장 일상업무무수행에 필요한 어휘</li> <li>·신문기사에 자주 등장하는 어휘</li> <li>·빈도가 높은 관용어와 속담</li> <li>·자연, 풍습, 문화, 사고방식, 경제, 과학, 예술, 종교 등 일반적 사회 현상 관련 핵심적 개념어</li> </ul>
2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에 자주 사용되는 어휘</li> <li>·공공시설이용 시 자주 사용되는 기본어휘</li> <li>·'제주도', '민속촌' 등 자주 접하는 고유어</li> <li>·'깨끗하다', '조용하다', '복잡하다' 등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형용사</li> <li>·'출발하다', '고치다' 등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동사</li> <li>·우체국이용, 회의 등 공적상황 관련 어휘</li> <li>·약속, 계획, 여행, 건강 관련 어휘</li> <li>·'자주', '가끔', '거의' 등 기본적 빈도부사</li> </ul>	5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li> <li>·직장의 특정영역과 관련한 기본적 어휘</li> <li>·세부의미를 표현하는 어휘(아프다: 걸리다,노랗다:누르스름하다)</li> <li>·자주 쓰이는 시사용어</li> <li>·'이데올로기','매스컴'등 사회 특정 영역에서 자주 쓰이는 외래어</li> <li>·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용어,속담</li> </ul>
3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어휘</li> <li>·업무나 사회 현상과 관련한 기본 어휘</li> <li>·직장생활, 병원이용, 은행이용 등 빈번하게 접하는 공적 상황 사용 어휘</li> <li>·'행복하다','섭섭할' 등 감정 표현 어휘</li> <li>·'늘어나다,위험하다' 등 사회현상관련어휘</li> <li>·'참석하다','찬성하다'등 직장생활관련어휘</li> <li>·'장점', '절약' 등 기본적인 한자어</li> <li>·'생각이 나다', '버릇이 없다'등 단한 언어</li> </ul>	6 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회현상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추상적인 어휘</li> <li>·널리 알려진 방언, 자주 쓰이는 약어, 은어, 속어</li> <li>·사회, 각 영역과 관련하여 널리 쓰이고 있는 전문용어</li> <li>·복잡한 의미를 갖는 속담이나 관용어</li> </ul>

박영순(1989)은, 생존에 필요한 기초적인 단어를 가르친 다음에는 문화적 기초어휘를 가르쳐야 한다고 하면서, 문화적 기초어휘에 포함될 어휘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 있다.

- ① 의식주생활에서 그 문화를 나타내는 가장 기본적, 전통적이며 상징적인 것.
- ② 문학, 음악, 미술 등 예술 분야의 개념, 대표적인 작가, 작품 또는 주인공 이름과 같은 고유명사 또는 이 문화의 독특한 양식이나 주제 등.
- ③ 그 문화에만 있는 독특한 풍습과 놀이를 나타내는 어휘.
- ④ 대표적인 관용어나 속담.
- ⑤ 언어예절에 관한 것.
- ⑥ 어느 시대의 정치, 사회 현상을 풍자하거나 상징하는 신어나 유행어 등등.

박영순(1997)은 한국어의 수십만 어휘 중 기초 어휘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들이며, 또 예를 들어 300 어휘, 500 어휘, 3000 어휘라고 했을 때 이 범주 안에 속하는 어휘가 어떤 것인지, 또는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아직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되지 않은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박영순(1998)은 또 기초 어휘 목록 선정 작업은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위해서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이것은 한 두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중국인 학습자들에 대한 어휘 교육에 있어서 어휘 목록의 선정은 교육 대상 어휘가 어떤 성격을 지닌 것인가, 초급, 중급, 고급 단계에 따라 어느 정도의 어휘가 사용되는가에 의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대륙에서 연구된 기존 연구를 분석해본 결과 한국어 교육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기본 어휘를 선정한 경우에 관련되는 논문은 한 편도 없었다. 어휘 사용 상황 실태 조사, 어휘 목록 선정 기준 등에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 교육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유형의 한국어 교과서들을 보더라도, 편집자 자신이 우선 확실한 기본 어휘 목록 선정기준에 쫓아 어휘를 선정하고 배정했다고 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재들의 편찬 방법을 보면, 한국어교재 편찬자가 중국이라는 교육장과 교육대상이 중국인이라는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한국에서 나온 교재를 참조하여 주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어휘를 선정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에서의 어휘 목록 선정은 중국 현지의 상황과 상술한 교육목표 및 어휘항목에 비추어 등급 별로 기준을 설정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난이도가 등급별로 차별화되어야 하며, 중국 문화적 어휘와 한국 문화적 어휘에 대한 선정

이 고려되어야 한다.<sup>5</sup> 중국인으로서 한국 사회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에 지나치게 생소하거나 어려운 어휘들은 어휘항목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전문어휘는 초급이나 중급의 기본 어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고, 가급적 고급과정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sup>6</sup> 어휘목록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어휘 수량을 등급별로 정하는 이것은 향후 중국의 한국어 교육 연구 학자들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 3.2 어휘 교육의 원리

어휘력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향상시킬 것인가 하는 것은 어휘 교육의 목표를 실현하고, 교육내용을 설정하는 근거가 된다. 중국인 학습자들은 어휘 학습 초기에 대개 목표언어의 단어와 모국어로 된 단어를 짝 지어 암기한다. 모국어를 통해 아는 어휘의 개념들을 약간 조정하기만 하면 제2언어 개념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국어와 제2언어의 어휘 의미가 전부 일대일로 대응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휘 교육의 원리와 방법이 제기된다.

어휘학습에서 교재에 나온 어휘들을 학습자 스스로 단순한 암기에 의거한다면 충분할까? 아니면 체계적인 교수방법이 필요한 것일까? 현재 출판된 교과서들에서 매 과문의 어휘와 보충어휘는 어휘해석으로 제시되어 있을 뿐이다. 이런 어휘들을 문맥과 연관지어 이해하거나 어휘의 의미를 체계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학습자 자신의 몫이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어휘 학습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어휘 교육에서 과학적인 원리와 효과적인 방법으로 가르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즉 어휘 목록 선정, 어휘 표현과 문법의 연관성 제시, 문맥을 통한 어휘 의미 파악, 배운 어휘의 활용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 3.3 어휘 교육의 방법

이충우(1997)은 한국어 어휘의 특성을 종합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sup>5</sup> MaAtthun(1978)에 의하면, 거의 어떤 텍스트의 85% 정도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어휘수는 약 1,000 개 정도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이해의 범위를 만일 91-92%까지 올리려면, 약 2,000 개의 어휘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3,000 개의 어휘를 가진다면, 이해의 범위는 약 95%에 이르게 된다. 서상규 외(1998:3-4)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여, 생존을 위해서는 약 1,000 개의 어휘가 필요하며, 간단한 독서를 위해서는 약 3,000 개의 어휘가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조현용(2007), “한국어 어휘 교육 연구”70P에서 재인용.)

<sup>6</sup>박영순(1989), “제 2 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5, 이중언어학회.

- ① 유의어가 많다.
- ② 동음이의어가 많다.
- ③ 대우를 나타내는 어휘가 발달하였다.
- ④ 음운교체에 의한 어감의 차이가 발달하였다.
- ⑤ 개념어로는 한자어가 많이 쓰인다.
- ⑥ 기초어휘에는 고유어 체계가, 전문어휘에는 한자어가 발달하였다.
- ⑦ 2,3,4,음절어가 발달하였다.
- ⑧ 체언이 격에 따라 형식이 달라지지 않는다.

조현용(2007)은 외국어로서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중심으로 볼 때, 한국어 어휘의 특징에 음성상징어가 발달하였고 이철자 동음이의어가 많다는 두 가지를 더 첨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런 특성을 가진 한국어 어휘를 잘 가르치기 위하여 세 가지 교육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한국어 특징에 따른 어휘 교육이고, 다른 하나는 도구적 관점에 따른 어휘 교육 방법이며 또 하나는 사회 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 방법이다.

한국어 특징에 따른 어휘 교육 방법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 **첫째, 어휘의 구조에 따른 교육 방법이다.**

어휘 구조에 따른 교육은 파생어, 합성어, 관용어, 속담, 의성의태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①파생어**

한국어 초급 학습자의 어휘 학습은 주로 암기를 위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중급 이상 학습자의 경우에는 어휘의 생성 원리를 이해하고, 조어(造語) 방식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어휘력이 신장된다. 즉 이미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접사와 어기의 결합을 이해하며 어휘를 확장시켜 나가기 때문에 파생어의 교육은 사뭇 중요하다.

한자어는 접사의 조어력과 생산성이 뛰어나므로 많은 파생어를 생산하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한자어 접사에 대한 지식은 곧바로 어휘력 증진으로 이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중국인 학습자들의 어휘학습에 이롭다.

#### **②합성어**

합성어는 새로운 단어의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단어형성의 생산성을 볼 때



한국어 어휘교육에서 합성어 교육 또한 홀시할 수 없다. 합성어 교육에서는 단어 형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가르쳐주어 단어합성법과 합성어의 유형을 이해하도록 한다면 학생들에 대한 어휘 교육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③관용어,

한국어 관용어에는 한국인의 생활과 문화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인 학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워한다. 그러므로 관용어 교육에서는 등급별에 따라 난이도와 빈도를 기초로 하는 정리와 선정이 필요하다.

#### ④속담

일상 생활에 깊게 뿌리 내린 속담은 상징성, 대중성, 관습성, 일상성을 바탕으로 오랜 세월이 걸쳐 정제되어 정착된 표현이다. 속담을 통해 어휘교육을 진행한다면 학습자들의 어휘력 신장 뿐만 아니라 사고력 향상, 그리고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 ⑤의성의태어

한국어의 대표적인 특징 중의 하나인 의성의태어 교육은 학습자들로 하여금 다양한 의성어와 의태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는 등 어휘력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의성의태어 교육은 악센트, 모음조화와 같은 음운론적 접근과 ‘어근+접미사’의 유형과 첩형과 같은 형태론적 접근으로 이해시키며,<sup>7</sup> 문맥 속에서 의미의 유사성이 있는 어휘와 함께 교육하는 것이 비교적 효과적이다.<sup>8</sup>

### **둘째, 의미적 관계에 따른 교육 방법이다.**

의미적 관계에 따른 교육은 유의어, 반의어, 다의어, 동음이의어, 상의어와 하의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①유의어

유의어는 그 의미가 서로 비슷비슷하지만 가리키는 대상의 범위나 쓰이는 상황이 다르며 미묘한 느낌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유의어 사용은 다양하고 풍부한 표현 효과를 획득하게 하므로 유의어 지도는 어휘력 확장뿐 아니라 표현력 신장에도 도움을

<sup>7</sup> 김중섭(2008),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sup>8</sup> 중국인 학습자들은 한국어 의성의태어에 대해 이해하기 아주 어려워할 뿐만 아니라 학습적극성도 그다지 높지 않다. 중국어가 한국어에 비해 의성의태어가 그리 발달되지 않은 원인으로 있겠지만, 한국어 의성의태어를 잘 모르더라도 문맥을 이해하거나 실제 대화에서 별로 큰 지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을 절박하게 느끼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원인으로 된다.

준다. 의미가 비슷한 단어들을 한데 묶어서 교육한다면 학생들이 새로 배운 단어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같이 배운 단어는 친숙한 유의어를 거쳐 더 잘 기억해낼 수 있다.

#### ②반의어

어휘를 제시하면서 의미적 반대 또는 무관성을 나타내는 반의성을 보이는 반의어를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어휘 확장에 도움이 된다. 이미 알고 있는 단어의 반의어가 새 어휘로 도입될 때 기존에 아는 단어와의 반의 관계를 설명한다면 학습자들이 단순한 어휘습득에 그치지 않고 문맥에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③다의어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새 어휘를 가르치는 동시에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다양한 의미로 쓰이는 다의어를 가르치는 것은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 수많은 새로운 어휘를 계속 가르치기보다 다양한 다의어의 사용법을 가르친다면 어휘학습과 이해 및 응용에 효과적이다.

#### ④동음이의어

동음이의어는 한자어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뜻을 밝혀주는 한자를 확인하고 동음이의어군을 익힐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휘 지도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동음이의어는 문맥에 의하여 구별하거나, 수식어를 사용하여 구별하거나, 장단, 고저, 강약 관계로 구별시키는 것이 좋다. 동음이의어 지도를 통해 같은 발음이지만 의미와 형태가 우연적으로 결합해 뜻이 다른 어휘가 있음을 인식시키고, 문맥에 맞는 어휘를 선택할 수 있게 한다.

#### ⑤상의어와 하의어

일반적으로 하의어는 상의어에 비해 의미가 구체적이며, 개별적이고 한정적인 반면, 상의어는 그 아래에 여러 개의 하의어를 가질 수 있으므로, 하의어에 비해 일반적이고 포괄적인 의미를 가진다. 이들의 관계와 특성을 고려하여 의미 관계를 적절히 사용하면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

### **셋째, 사회 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 방법이다.**

사회 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은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 경어, 방언, 신조어, 유행어 등으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 ①고유어

고유어에는 한국인들의 정서, 심리 등 문화가 배어있으므로 중국인 학습자들이 어려움을 느낀다. 어휘 교육 시, 단순한 의미해석에 그칠 것이 아니라 고유어와 한자어가 나타내는 상호간의 차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고유어가 나타내는 의미, 문장에서 하는 기능, 화용론적 특성을 해석해 준다면 비교적 효과적이다.

#### ②한자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한자어 교육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러나, 일부 한자어는 중국어와 표현은 같으나 의미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의미가 전혀 다른 경우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간단한 일만은 아니다. 한자어 교육에서는 동소반소어, 동형동의어, 이형동의어, 동형이의어 등 한자어의 예를 제시하여 가르친다면 학습자들의 어휘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③외래어

국제화, 세계화를 지향하는 현 시대에 있어서 외래어 교육은 빼놓을 수 없다. 외래어 교육 시,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를 한데 묶어서 제시한다면 어휘량의 확대와 어휘력의 신장에서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 ④경어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있어서 경어의 습득은 아주 어려운 점이다. 특히 어휘체계가 경어와 평어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 사용에서 평어와 경어를 정확하게 잘 가려 쓸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경어 교육 시 평어와 경어를 쌍을 지어서 집중적으로 지도하며 단순한 암기 방법보다는 배경을 통해 역할을 분담시켜 가르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 ⑤방언

한국어의 방언은 지역에 따라 아주 발달되어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방언 교육 역시 홀시할 수 없다. 물론 표준어를 중심으로 가르쳐야 하겠지만 언론매체 이용 또는 한국 여행 시, 또 의사소통 대상이 여러 방언사용자들일 수 있으므로 일정한 단계에서부터 방언을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다.

#### ⑥신조어

한국에서 신조어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조어 교육은 필요한 것이다. 신조어의 의미체계들에는 현대 한국인의 사고방식이 연결되어있으므로 한국사회와 한국문화의 이해에 도움이 된다. 특히 신조어가 많이 생성되는 인터넷을 통하여 신조어를 습득하고 신조어의 생성방식을 살펴보는 것 역시 어휘의 체계적인 습득에 도움이 될 것이다.

#### ⑦유행어

유행어는 한국의 사회상을 반영하는 언어요소의 하나이다. 저속하거나 거친 표현들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한국의 부정적인 면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적당하게 가르칠 것이 필요하다. 유행어 교육을 통하여 한국사회에 대한 이해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 4. 결론

이상으로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중국 한국어 교육학자들이 지난 10여 년 간에 걸쳐 진행해 온 중국 대륙의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논문들을 집계하여 대체적으로 총화해보고, 향후 교육 현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는 어휘 지도 방법의 모색과 제안에 두고 논의해 보았다.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휘 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백 번 강조해도 과분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학습자의 자유로운 어휘 사용 능력의 신장과 원활한 의사소통이다. 이러한 어휘 사용 능력 신장의 기본이 되는 것이 바로 어휘 지식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중국 대륙의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을 뿐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음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휘 교육과 연구가 다양한 방면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어휘 목록 선정 기준을 설정하고 중국인 실정에 맞는 교과서를 편찬해야 하며, 어휘 교육에서 개별 단어의 교육이 아니라 어휘의 구조에 따른 교육, 의미적 관계에 따른 교육, 사회 언어학적 특징에 따른 교육의 방법으로 행해야 함을 과제로 제기하고자 한다.

## 참고문헌:

- 김정숙(2003), "통합 교육을 위한 한국어 교수요목 설계 방안 연구", 한국어 교육 제 9 권 1 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김석기(2005), "고급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 사투리 교육방안모색".
- 김경숙(2008), "외국어로서의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지도방안 모색".
- 김중섭(2008), 『한국어 교육의 이해』, 한국문화사.
- 류인귀(2002), "어휘 지도의 효과적인 교수-학습 방법연구", 신라대 석사학위논문.
- 박동호(1998), "대상부류에 의한 한국어 어휘기술과 한국어 교육", 한국어교육 제 9 권 109 호, 한국국어교육연구학회.
- 박영순(1989), "제 2 언어교육으로서의 문화교육", 이중언어학회지 5, 이중언어학회.
- 백봉자(1991), "한국어 교재개발을 위한 기초작업", 교육한글 4, 한글학회.
- 이충우(1997), "어휘교육과 어휘의 특성", 국어교육 95, 한국 국어 교육연구회.
- 이정희(1997), "외국인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에 관한 연구", 경희대석사학위논문.
- 조현용(1999), "한국어 어휘의 특징과 어휘 교육", 한국어교육 제 10 권 1 호, 국제한국어 교육학회.
- 조현용(2007), 『한국어 어휘교육연구』, 도서출판 박이정.
- 조현용(2008), "한국어 어휘교육론", 경희대 2008 년 한국어교육자 연수프로그램.
- 허용외(2009),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학 개론』, 도서출판 박이정.

## [부록]

###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제 1 호(2003)-제 6 호(2008)】

- 1) 최순희(2002), “어휘교육과 한국어 교재 개발”;
- 2) 김계화(2003), “기초 한국어 교육에서 어휘숙달을 위한 교수방법”;
- 3) 김석기(2003), “효과적인 고유어 지도방법 모색”;
- 4) 김찬화(2003),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형용사 의미교육 방안”;
- 5) 낙경민(2003), “어휘 교육과 관련된 체언표현법 교육의 특징과 실시방법”;
- 6) 노금송(2003), “한국어 다의어와 유의어 교육 연구”;
- 7) 박숙자(2003), “어휘교수와 한국어 교육”;
- 8) 박선희(2003), “어휘 사용의 오류시정을 통한 어휘교육”;
- 9) 민영란(2004), “어휘숙달을 위한 문맥적 의미의 교수”
- 10) 이성도(2003), “‘사람’을 뜻하는 한국어 고유어접미사 및 파생어에 대하여”;
- 11) 이해영(2003),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어휘교육”;
- 12) 한위성(2003), “한국어 어휘 교육방법에 관한 연구”;
- 13) 최희수(2003), “어휘 교육을 위한 기초연구”;
- 14) 장광군(2003), “어휘 교육에서의 약어 교육(한자어 약어를 중심으로)”;
- 15) 이해영(2003),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어 어휘 비교 연구”;
- 16) 이흥매(2003), “유추적 신조어와 어휘 습득에 대하여”;
- 17) 강보유(2004), “시험평가로부터 본 한국어 어휘-문법 교육”;
- 18) 김경숙(2004), “중·한 동형한자어 의미론적 특징에 대한 일고찰”;
- 19) 문려화(2004), “의미가 축소된 한자어 및 그 한자어 교육”;
- 20) 문영자(2004), “한국 동요를 이용한 어휘 교육”;
- 21) 이성도(2004), “한국어 흉내말 및 그 교육에 대하여”;
- 22) 한위성(2004), “한·중 어휘의 의미론적 비교와 그 교육”;
- 23) 한위성(2004), “한국어 어휘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
- 24) 황현옥(2004), “단문 짓기로부터 본 한국어 어휘 교육”;
- 25) 우리강(2005), “민족문화 동의어에 대한 연구”;
- 26) 이득춘(2005), “21 세계 한국어 신어(新語) 중의 한자어”;
- 27) 최희수(2005), “한국어 한자어의 특성”;
- 28) 김석기(2005), “고급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효과적 사투리 교육방안모색”;
- 29) 이성도(2005), “속담을 통한 한국 언어 문화 교육”;
- 30) 김찬화(2006), “유의어 사용에서 나타나는 오류 분석”;
- 31) 강용택(2006), “신체어와 관련된 우리말 관용어에 대하여”;

- 32) 미희하(2006), “기호학으로 본 한·중 색채어의 문화정보”;
- 33) 박문자(2006), “어휘 의미와 ‘문화소’”;
- 34) 왕 단(2006), “한국어 교육을 위한 한·중 형용사 대조분석”;
- 35) 조 암(2006), “중국학생을 위한 한자어 학습과 교육”;
- 36) 한위성(2006), “중·한 동형어의 의미적 비교 일고찰”;
- 37) 김영희(2006), “한·중 동형 어휘의 차이점”;
- 38) 이성도(2006), “한국어 의존명사 교육 연구현황과 과제”;
- 39) 허봉자(2006), “한국어 교재의 인칭대명사 연구”;
- 40) 고 정(2008), “한국 인터넷 통신 언어 해석”;
- 41) 교육양(2008),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사회호칭어 사용실태조사 분석”;
- 42) 노금송(2008), “중·한 번역에서의 한자어 교육 연구”;
- 43) 지수용(2008), “중국에서의 한국어 한자교육과 한자 교재개발 방안”;
- 44) 유길문(2008), “중·한 색채어에 나타난 은유적 의의 탐구”

### 【중국에서의 한국어 교육 제 1 집(2000)-제 7 집(2007)】

- 1) 김병운(2000),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어휘의미 교육방법에 대하여”;
- 1) 김충실(2000), “한국어 관용어 특징에 대하여”;
- 3) 박선희(2001), “회화 교육에서의 어휘와 문법의 교수”;
- 4) 최희수(2002), “어휘 교수에서의 몇 가지 문제”;
- 5) 노금송(2002), “한국어 어휘 교육 방안 모색(유의어를 중심으로)”;
- 6) 이흥매(2002), “신조어 및 언어규범화에 대하여”;
- 7) 지수용(2002),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교육 문제에 관하여”;
- 8) 염광호(2003), “단위 명사처럼 쓰이는 단어의 결합 관계에 대하여”;
- 9) 이흥매(2003), “한자어 신조어가 표현하는 말의 경제성”;
- 10) 김경숙(2004), “중 한 동형한자어의 의미론적 비교 및 한국어 어휘교육”;
- 11) 민영란(2004), “텍스트에 나타난 한자어의 양상 및 그 교육”;
- 12) 오춘화(2004), “오류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한자어 지도방법 모색”;
- 13) 유춘희(2004), “한국어 부사의 일고찰”;
- 14) 이흥매(2004),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신문을 통한 한자어 교육”;
- 15) 임효려(2004), “한국어 관용 표현 연구”;
- 16) 장광군(2004), “한자어 교육과 의미투명도 이론의 적용”;
- 17) 최희수(2004), “한국어 한자어 전수의 필요성”;
- 18) 민영란(2005), “텍스트에 나타난 속담교육에 대하여”;
- 19) 문영자(2005), “의미가 전이 확장된 어휘의 양상과 교육”;

- 20) 이흥매(2005), “한국 신문표제어의 한자어에 대하여”;
- 21) 정동매(2005), “한·중 의성어의 비교 고찰”;
- 22) 제효봉(2007), “중·한 부모친족어에 관한 대비 연구”;
- 23) 사려평(2007), “‘스렵다’의 어휘의미와 중국어 대역”.

### 【중국 한국(조선)어 교육연구 학회 학술회의 발표 논문(미공식 발표)】

- 1) 유춘희(2004), “한국어 부사 교수에서 주의해야 할 문제”;
- 2) 유춘희(2004), “한국어 부사의 일고찰”;
- 3) 김경숙(2008), “외국어로서의 효과적인 한국어 어휘지도방안 모색”;
- 4) 진염평(2004), “한국어의 한자어 연구”;
- 5) 지수용(2004), “한국어 교육에 있어서의 어음, 어휘 오류 분석 연구”;
- 6) 이흥매(2005), “한국어 어휘 문법 교육과 광고의 활용”;
- 7) 유 설(2005), “신축어 축약어와 한국어 교육”;
- 8) 유춘희(2005), “‘가장’과 ‘제일’의 의미와 구문론적 특성”;
- 9) 진염평(2005),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유의어의 학습과 지도 방법 연구”;
- 10) 정 혜(2005), “부정부사 “안”, “못”의 통사적 분석”;
- 11) 송 교(2007), “교과서에 나온 한자어와 한어 어휘의 대비”;
- 12) 마금선(2007), “중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자어 교육”;
- 13) 김석기(2008), “중국에서의 한국어 어휘교육 연구 현황”;
- 14) 마금선(2008), “중·한 교육용 어휘에 대한 고찰”;
- 15) 여춘연(2008), “한국어 연어에 대한 연구”;
- 16) 김순길(2009), “한국어 3 인칭 대명사의 사용제약에 대하여”;
- 17) 광일성(2009), “한국어 미각형용사 의미전이 연구”;
- 18) 최영란(2009), “중국인 학습자 부사오류 양상 및 교수 학습 방법”.